

전북대병원서 새해 첫 '세쌍둥이' 탄생

산모 1분 간격 남아 3명 제왕절개 통해 순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원내 분만실에서 새해 첫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산모 배수연(35, 부안군)씨는 임신 34주 1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1시 31분부터 33분까지 1분 간격으로 남아 3명을 제왕절개를 통해 순산했다.

배 씨는 8세와 7세 아들 둘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 세쌍둥이 순산으로 다섯 아들을 둔 다둥이 가족이 됐다.

무술년 새해둥이인 아이들은 첫째가 1929g, 둘째가 2240g, 셋째가 1830g으로 태어났다. 산모인 배씨와 두 아들은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으나 가장 작게 태어난 셋째 아이는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세쌍둥이의 분만을 맡은 산부인과 정영주 교수는 "세쌍둥이의 경우 자칫 조산의 위험이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데 산모의 각고한 노력으로 아이들 모두 안정적으로 잘 자랐다"며 "신생아들과 산모 모두 건강할 상태며 셋째의 경우 몸무게가 적어 다른 아이들 보다 퇴원이 늦긴 하지만 건강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배수연 씨는 "처음에 세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걱정되긴 했지만 그동안 가족들은 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원내 분만실에서 새해 첫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론 의료진의 많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됐다"며 "아이들 육아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에게 준 큰 선물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돌보면서 뱃속에 있는 세쌍둥이까지 무사히 키워낸 아내가 자랑스럽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대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아빠 오현욱(42) 씨도 "무엇보다 두 아

마인플랜트, 조촌동에 라면 150박스 기부

조촌동 성덕동에 위치한 마인플랜트는 25일 지역 주민의 따뜻한 설 명절나기기를 위해 썬달라며 라면 150박스를 기부했다.

마인플랜트는 산업플랜트 배관, 열교환기 생산 등 에너지사업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조촌동 관내 기업으로 분기마다 100만원씩 한 학생과 결연을 맺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하는 등 나눔의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유종석 대표는 "사업체가 있는 조촌동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돕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길태 조촌동장은 "따뜻한 마음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중앙환경기업,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 가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은 25일 동강실에서 (유)중앙환경기업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박재호 대표는 사람의 후원금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고 기탁했으며 서신동에서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유경수 서신동장은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서신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중앙환경기업은 방역서비스 및 청소, 경비용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생활환경위생 전문기업으로 '나눔온케어'라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사, 간병 등의 봉사를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 | | | |
|-------------------|--------------------|--------------------|--------------------|
| 전주시 | 중앙지사 010-9388-6874 | 남원지사 652-3886 | 고창지사 563-6889 |
| 010-9845-4113 | 인후지사 246-6855 | 김제지사 547-8855 | 임실지사 010-9642-2725 |
| 삼천지사 | 순천지사 255-2404 | 완주지사 246-8855 | 진안지사 433-3084 |
| 010-2333-4791 | 광복지사 253-6844 | 남원지사 652-0955 | 정읍지사 538-3787 |
| 서신지사 272-9417 | 군산지사 010-6789-0038 | 순창지사 653-0444 | 장수지사 010-3882-9157 |
| 호지사 010-9845-9355 | 익산지사 659-9323 | 부안지사 010-2425-4182 |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 열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제33회 정기총회를 25일 오전 11시 호 텔르인 백제홀에서 김광수 국회의원,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내빈과 협회 대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김태경 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전문건설업계의 위상제고에 앞장서고, 회원사의 수주물량 확대와 경영난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의 노력에 관계기관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업계발전에 기여한 건설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김진성 기자

진북동 주민자치위-통장협의회, 이웃사랑 나눔행사 동참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위원회의 협의회는 심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150만원을 관내 어려운 가정 22세대에 25일 전달했다.

한편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및 발전 방안을 제시, 위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각종 봉사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새중앙교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주새중앙교회는 25일 덕진구청을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평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 새중앙교회 성도들이 성탄절 특별헌금으로 마련했다.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각각 500만원씩 전달,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소외계층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남원시장에인복지관,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열어

남원시장에인복지관(관장 김오자)은 1월 23일~24일 2일 동안 2018년 동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이번 동계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날은 자원봉사 기초교육과 장애인해교육을 진행하고 휠체어와 휠체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체험을 실시하였다. 둘째날은 마사회교육과 실습을 통해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의 유대관계형성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직접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농구, 풋살등의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장애인들에게 직접 제공, 참여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읍 시기마을 강귀원씨, 쌀 100포 읍사무소에 기탁

순창읍 시기마을 강귀원씨가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20kg 100포를 읍사무소에 기탁했다.

특히 강귀원씨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백미 20kg 100포를 기탁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올해 기탁한 백미 100포는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 일곱 번째 이야기